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사야 56:1-8)

언약을 잡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언약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나의 담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담대함을 누리고, 그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시고, 일어날 일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막은 자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유무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나뉩니다. 이것을 두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답 난 사람은 노력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노력이 말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노력 안에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노력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닙니다. 노력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그 노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렘넌트는 공부 따로 언약 따로가 아닙니다. 언약 안에 공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언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간마다 말씀 나옵니다. 그럼 자연스레 우리 인생의 모든 노력을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말씀 받는 자는 모두 유능해집니다.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 못하고, 정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복음입니다. 그 이외에 정의처럼 보이는 것은 모두 일시적일 뿐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에는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이 '완전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의와 의는 같은 의미입니다. 정의는 바른 의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나타난 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정의는 세상을 심판하고, 그 심판에 대하여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 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언약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과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항상 시대적인 복음으로 나타나며, 말씀 성취 중에 많은 기적과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그 말씀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시대적인 부름을 받아 318명의 가병을 이끈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도 롯보다 나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메시지를 따라간 자들은 시대적인 인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 자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의 영원한 기회를 놓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에게 주신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본 답이 없이 노력만 해서는 종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항상, 매일 누려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과 하나님의 소원, 세계 복음화를 말하고 있으며,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공하기 원합니다. 경제가 풍성해져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누구나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답을 잡아야 합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번에 마리오 전도사님 통해서 한국의 선교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의 현지 제자들과 소통하고 있는지 통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남미 제자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결된 목사님들과 평신도 제자 3-4명을 포함하여 50여명 있었습니다. 그 아래 연결되어 복음 운동의 영향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 6,000여명 되었습니다. 수치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아직도 부족하지만 성경의 바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전달했기 때문에도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 바울의 전도 운동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저는 목사님들 30여명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사역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도 운동을 미국에 적용하기 위해 시작하는 출발이 이번 6차 전도 집중 훈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러한 언약에 닿아 있어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삶에 연결될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면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언약에 눈을 뜰 때, 저는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1.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1절에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하는 이유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라, 구원과 심판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의와 의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지키고, 그 언약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과할 일이 없습니다. 너희는 복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라. 다음 절에 어떻게 이 복음을 지키고, 의를 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복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3절에는 이방인과 씨가 없는 고자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고자는 대가 끊어지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인데,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6절에 '나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나를 믿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조건을 언급하셨고, '나의 언약을 지키며'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구원)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이방인이라도)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예배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로 쫓겨난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여호와)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방인도 낙심하지 말고, 나와 연합하여 나의 종이 되며, 나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면 너희가 전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나의 복음을 지키고, 그의 의를 행하라. 복음을 지키고 그의 언약의 피를 보혈의 피를 행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안식일을 중심으로 봤을 때, 행해지는 모든 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이방인과 고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모든 결론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고자에게도 아들, 딸보다도 더 기쁜 기념물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산(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자와 이방인,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피로 드리는 안식일을 우상으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다면 고자도 이방인도 축복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의 안식일은 어떠한가,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여부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게 들어온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내게 들어온 말씀이 내 평생에 들어온 말씀이면 내 평생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이 성경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을 따라간 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성경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게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따라가는 말씀 없는 삶은 제멋대로 사는 삶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잡고, 그리스도를 행하는 근본 언약입니다. 근본 언약을 받고, 근본 언약을 잡으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 하며, 그 결과가 내 인생에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정복하게 해야 합니다. 아마 롯은 이것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계 복음화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면 방향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유가 세계 복음화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이유인 소원을 행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복음화 대열 속에 강단 말씀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과 생각이면 그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따라가는 지도자의 인도를 받는 모든 제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응답 주시고, 예비하신 사람을 붙이실 것입니다. 거기서 기적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방향이 세계 복음화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인도받습니다. 반복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설프게 들어오는 말씀도 내 인생에서 성취되는데, 내게 들어온 말씀은 현장을 정복하고, 거기 역사하는 사탄을 정복합니다. 문화도 정복하고, 환경도 정복하고,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말씀이 정복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살지 못할 환경이 가득한 광야에서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으며, 바울과 그 제자들이 이뤄냈습니다. 모든 환경, 핍박, 문화를 정복했고, 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핍박하던 정치가 문화 때문에 바뀌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정의, 성경의 정확한 복음, 바울이 행했던 그리스도의 보혈. 안식일을 날짜가 아닌 예배와 생명으로 지켰던 것.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린 더 큰 해방과 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에 걸려있습니다. 눈이 열려 말씀을 받는 자는 모두가 이렇게 살 것입니다.